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한민국 제도약의 힘, 창조경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과장 김상태(044-203-5720), 서기관 이응대(5721)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최(2.29)

- 민간 차원에서 10년 만에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제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계기로, 양국 기업들은 민간 차원에서 한-비즈니스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주최 무역협회와 KOTRA)하여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 발굴 등을 논의함

○ '16.2.29(월) 테헤란 소재 아자디 호텔에서 개최된 포럼에는 한국은 삼성전자, 대우인터내셔널, GS건설 등 대기업 39개사, 중소기업 27개사, 업종단체 등 총 95개사 300여명과 이란은 이란투자청(OIETAI), NIOC(이란석유공사)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함

□ 이번 포럼은 양국 민간 차원에서 10년 만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양국 경제인간 교류, 협력 활성화로 양국 협력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포럼 개막식에서 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장기적 시각에서 이란과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 증진을 위해 '이란 산업구조 고도화의 동반자', '보건의료, 교육 등 이란 국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협력 동반자', '사회간접자본과 인프라 분야의 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 3대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 양국의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포럼 개막식에 이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란 발리올라 아프가미 무역진흥청장의 임석하에 한전, 포스코 등의 우리측 3개 기업과 이란 기업간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MOU/MOA 체결함 (첨부 참조)

○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FINEX-CEM 기술을 적용한 연간 160만톤 규모(사업비 16억불)의 차바하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 이란 PKP社와 MOA를 체결함

○ 한국전력, 포스코에너지 및 포스코건설은 차바하 일관제철소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할 500MW 화력발전소 건설과 담수 플랜트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함

○ 두산중공업은 차바하 경제자유구역 내 화공단지용(Petrochemical Complex) 내 열병합발전소(280MW) 및 담수화설비(일 4.1만톤 물생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이란 모크란(Mokran)社와 MOA를 체결함

□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은 한류 문화(컨텐츠진흥원), 금융지원방안(수은, 무보), 양국 에너지협력 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을, 이란은 이란의 투자환경 및 합작투자(투자긴흥청),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계획(이란석유공사)을 발표하고, 앞으로 상호 관련기관간의 협력 사업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함

○ KOTRA는 기계·장비, 건설, 화학 분야 등 중소기업 27개사가 참가하는 1:1 무역 상담회와 국내 철강, 조선 분야 대기업 16개사가 참가하는 네트워킹 상담회를 개최하여 총 276건의 상담을 주선하였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김상태 과장(☎ 044-203-5720) 또는 이응대 서기관(☎ 044-203-57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요

□ **(목적)** 민간 차원의 **대이란 수출 확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기회로 활용

□ **(일시)** '16.2.29(월), 09:00 ~ 13:00

※ 대기업 네트워킹 상담회(오후), 중소기업 1:1 무역상담회(종일)는 별도장소 개최

□ **(장소)** 테헤란 아자디 호텔 (Azadi Hotel Zarrin Hall, M층)

□ **(참석자)** 양국 기업인 400여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연 사
09:00-09:05	5	코란낭독	사회자
09:05-09:10	5	개회사(Opening Speech)	무역협회 부회장
09:10-09:20	10	환 영 사	이란상의회장
09:20-09:40	20	축 사 ★	한국 : 장관님 이란 : 무역진흥청장
09:40-10:00	20	① MOU 1건 (한전 등) ② MOA 2건 (포스코, 두산중공업)	장관님 임석 * 체결식 후 장관님 퇴장
10:00-10:15	15	<Intro> - 한류, 컨텐츠 문화를 선도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10:15-11:00 (세션 1)	20	(이) 이란의 투자환경 및 합작투자	이란투자청(OIETAI)
	25	(한) 한국의 해외진출 금융지원(Financing)	수은, 무보
11:00-11:40 (세션 2)	20	(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계획	이란국영석유공사(NIOC)
	20	(한) 한-이란 에너지 협력의 미래	에너지경제연구원
11:40-12:00	20	질의응답(Q&A) 및 폐회	사회자, 발표자
12:00-13:00	60	네트워킹 오찬	

※ 사회 및 한국측 축사 : 한/페르시아어 통역 (이란축사 : 페르시아/영어 통역)

첨부 2 차바하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개요**

○ 내용 : 이란 차바하 경제자유구역(Oman해 연안) 내 포스코의 FINEX-CEM 기법을 도입한 일관제철소 건립 프로젝트

○ 규모 : ① 1단계('19년~) - FINEX-CEM 도입, 연 160만톤 생산
② 2단계('20년~) - 냉연 도금, 연 60만톤 생산

○ 총투자비 : 약 16억불 예상(포스코 그룹 8% 지분 참여)

○ 발주처 : 이란 Pars Kohan Diarparsian Steel(PKP社)

< 제철소 건설 입지 >



○ 연해 부지로 제철소 운영에 필요한 자원 및 제품 운송 용이

○ 역내 풍부한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활용

○ 이란 경제자유구역 내 위치로 세재 혜택

□ **기대효과**

○ 이란측 : 포스코의 최신 철강기술과 운영노하우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제철소 건설

○ 한국측 : 한국 고유의 친환경 철강 기술 수출 및 중동지역 기술 확산을 위한 모델 플랜트 확보

□ **프로젝트 MOA 체결** (*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최 시)

○ 일시/장소 : '16.2.29(월) 09:40, 이란 페르시안 아자디 호텔

○ 내용: 160만톤 열연코일 제조를 위한 FINEX-CEM 제철소 건설

○ 서명자 : (한) 포스코 이후근 전무, 포스코건설 김동철 전무
(이) PKP社 Mr. Abdolreza Zoroufchian / 3자간 체결

* (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란) 발리올라 아프가미 무역진흥청장 임석

첨부 3 차바하 발전소(500MW) 건설 · 운영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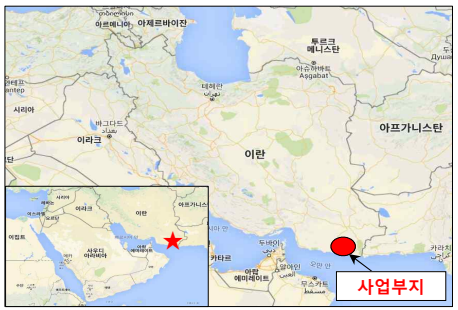
○ 내용 : 포스코가 추진 중인 제철소 및 차바하 경제자유구역에 전력 및 용수를 공급할 발전소(담수플랜트 포함) 건설·운영 프로젝트

○ 규모 : ① 건설용량 500MW, ② 담수 2,500㎥/hr

○ 총사업비 : 약 6억불 예상(지분구도 미확정)

○ 전력구매자 : 이란 TAVNIR(이란전력공사) 예정

< 발전소 건설 입지 >



○ 포스코가 추진중인 제철소 부지내 경제 자유구역에 입지

○ 차바하르만 해안 인접

○ 현장 부지 30년간 무상 임대

□ 기대효과

○ 이란측 : 발전소의 건설·운영 기술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전력공급 능력 확보로 기업 유치 활성화 가능

○ 한국측 : 차바하 제철소와 연계한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장기 투자 수익을 확보

□ 프로젝트 MOU 체결 (*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최 시)

○ 일시/장소 : '16.2.29(월) 09:40~10:00, 이란 페르시안 아자디 호텔

○ 내 용 : Chabahar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협력

○ 서명자 : (한) 한전 조환익 사장, 포스코에너지 윤동준 사장, 포스코건설 한찬건 사장
(이) PKP社 Abdolreza Zourfchian 회장 / 4자간 체결

* (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란) 발리올라 아프가미 무역진흥청장 임석

첨부 4 Mokran 발전소·담수플랜트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개요

○ 내용 : 이란 차바하 경제자유구역 내 화공단지용(Petrochemical Complex) 발전, 담수, 수처리를 포함하는 Utility 건립 프로젝트

○ 설비규모 : 열병합발전소(280MW), 담수화설비(일 4.1만톤 물생산)

○ 총사업비 : 미정 (최종 계약조건 및 금액 협상 중)

○ 발주처 : 이란 Mokran Ab Niroo*

* 이란내 가스전 30%를 소유한 Shastan社의 100% 자회사

< 발전소 및 담수플랜트 입지 >



○ 포스코의 제철소 투자 지역과 동일지역의 경제자유구역(Charbahar)에 위치

○ 세제 특혜부여, 화공 및 제철품 수출입 입지에 유리

□ 기대 효과

○ 이란측 : Power & Water 사업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하여 글로벌 수준의 기술과 노하우 도입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

○ 한국측 : 이란 Power & Water 프로젝트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이란의 한국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

□ 프로젝트 MOA(합의각서) 체결 (* '16년내 수주계약 추진 중)

○ 일시/장소 : '16.2.29(월) 09:40~10:00, 이란 페르시안 아자디 호텔

○ 내용 : Petrochemical공단용 Utility플랜트에 대한 일괄EPC계약을 파이낸싱 조달 조건부로 양사간 수의 계약 추진 합의

○ 서명 : 두산중공업 김현탁 부사장 - Mokran社 Mr.Tirdada Alaei 사장

* (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란) 발리올라 아프가미 무역진흥청장 임석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축사
Parsian Azadi 호텔 (M층, Zarrin Hall)
'16. 2. 29 (월), 09:20~09:30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축 사

2016. 2. 29 (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 형 환

1. 인사말씀

쌀럼 바르 쇼머(안녕하십니까)

발리올라 아프가미 (Valiollah Afkhami) 무역진흥청장님,
모흐센 잘랄푸르 (Mohsen Jalalpour) 이란상의 회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양국 기업인 여러분,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멀리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 기업인과,
한국 경제사절단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신
이란 기업인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즈니스 포럼을 준비해 주신
무역협회 김정관 부회장님,
코트라 김재홍 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4년 전 테헤란을 방문한 이후
다시 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견한 차이점 한 가지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이란 국민들의 표정이
매우 밝고 활력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해 보겠다는 의지와 희망,
자신감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 양국간 교류와 협력 평가

양국 기업인 그리고 귀빈 여러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이란 양국의 교류는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헌상의 기록은 없지만, 한국 고대왕국 신라의 유물에서
두 나라가 교류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1962년 수교로 공식화 되었고,
1970년대 본격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애태우던 우리에게
이란은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원유를 공급하였습니다.
이란 도로와 수송망 건설에
2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땀 흘렸고,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로
해외 건설사들이 이란에서 철수할 당시에도
한국의 건설기업은 창간 가스정제공장 건립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제제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은 서로에게 여전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들은 이란을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과 이란은 기쁨과 아픔은 물론,

희망도 같이 한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란에 서울로와 서울공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테헤란로는 한국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IT, 벤처기업은 물론,
유수의 다국적 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지역에 테헤란의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이
한국이 얼마나 이란을 친구로서,
그리고 서로의 번영과 발전을 염원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3. 한-이란 경제협력 방향

양국 기업인 그리고 귀빈 여러분,

향후 이란은 제6차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목표를 세워
소재, 정보통신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사회 인프라를 확충하며
국민 생활향상을 정책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란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협력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장의 협력과 이익도 중요하지만,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이란의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높은 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가 가진 잠재력과 상대의 장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8 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경제권입니다.

중동과 페르시아만,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란의 지리적 장점은
이란 내 소비시장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수출을 위한
제조업 허브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도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서 발전 잠재력이 있으며,
중동-페르시아 지역에서 제 1의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하여
단기간에 '한강의 기적' 을 이룩한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은 물론, ICT 등 첨단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온 전문 인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문화적 자부심이 높고,
情에 기초하여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비슷한 국민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등 스포츠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주몽, 대장금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 영화 등 문화에 친숙함을 가지고 있어
자연스런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장점과 친밀도가 합쳐진다면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면서,
산업육성, 사회부문, 인프라 협력 증진의
세 가지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양국은 단순 교역관계를 넘어
산업 고도화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가진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기술을
이란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이란의 산업기반과 결합된다면
이란은 최고의 산업 강국이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합작투자, 공동 R&D를 수행하여
생산성 향상과 고도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기계부품, 경공업 등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KSP 사업, Techno Park와 한국기업전용공단 설치 등이
기술전수와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개발 경험은
이란이 과학 선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이란의 국가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제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반과
발전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협력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중동 등 인근 지역으로 진출해 나간다면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건의료, 교육, 문화에서도 협력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란의 8%대 경제성장과 향후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보건의료, 교육 등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란의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한국은 이란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와
ICT와 연계한 의료복지정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란의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종합병원 설립과
건강검진센터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면
이란 의료분야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은
어느 나라보다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산업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업훈련시스템, 화상교육 등에 대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자산인 청년들의 역량 제고가 가능합니다.

국제화, 개방화 진전에 따른 문화교류 증진도 중요합니다.
한국에 이란 문화원을 설립하는 한편,
서로 관광을 촉진하고 체육인과 예술인 등의 교류를 확대하여
소프트파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인프라 분야에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란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산업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력, 철도·항만 등 인프라 확충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사업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인프라 건설 경험과 성실성을
양국 기업의 도전 정신, 금융 역량과 결합하여
인프라와 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산업 생산 확대에 따른 전력 부족 문제는
한국과의 협력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세계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송배전 분야의 효율향상 사업과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항만, 교통인프라 개발 분야에서도 이란과 협력하여
교역확대를 뒷받침하기를 희망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이란 기업과 컨소시엄을 모색하겠습니다.

신규 유망 사업은 KOICA의 개발조사를 통한
타당성 분석을 기초로
EDCF, 수출금융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유전, 가스전 개발 및 관련 플랜트 분야의
협력도 가속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자원분야의 탐사, 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MDB 등과 연계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란 석유, 가스 자원 생산능력 향상에 맞추어
이란산 석유와 가스의 도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맺음말씀

양국 기업인 그리고 귀빈 여러분,

양국 정부는 오늘 오후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ICT, 그린산업으로
발전해 온 산업화 과정에서의 노하우 전수를
KSP사업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병원, 직업훈련원 설립 등은 유·무상 개발협력으로 추진하고,
교역·투자확대, 산업협력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란 측에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통관상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활한 결제시스템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합작투자 촉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적극적인 정부 보증도 필요합니다.

양국 기업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유망한 사업 분야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양국 기업인 여러분,

양국 정부는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은 기업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양국 간 협력과 공동 번영의 미래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열정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양국 관계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퍼쓰고저람(감사합니다).